

추미애 ‘머리 자르기’ 발언 국민의당 뿔났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민주당 사과·秋 사퇴 촉구...국회 보이콧 선언 장관후보 임명 동의·추경안 상정 등 스톱...현안 표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돌출 발언으로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 장관 후보자 임명 동의와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개편법 처리 등 현안이 표류하게 되면서 정국이 더욱 꼬일 전망이다.

추미애 대표는 6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박지원·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문준용 특혜재용 의혹 제보 조작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도, 꼬리 자르기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은 자체 수사를 해서 국민이 믿지도 못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박 전 대표는 법사위 위원으로서 검찰을 압박하고 이런 상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추 대표와 민주당

의 사퇴,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오늘 이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추 대표의 발언이 정치적 도의를 넘어서는 데다 이러한 막말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격분하고 있다. 국민의당을 협치의 대상이 아닌 위기 국면을 이용,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총리 인준 및 부총리 임명 동의, 추경 심의 등 각종 정국 현안에 있어 민주당에 나를 협조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당으로선 배신감도 크다. 여기에 민주당과 대립 각을 세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쥐 국민의당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갈 길 바쁜

민주당은 더욱 곤혹스러워했다.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법 처리, 장관 후보자 임명 동의 등 해결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추 대표의 발언으로 대야(對野) 관계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야당과 협상을 책임지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추 대표가) 발언 전 상의한 적 없다. 곤혹스럽다”며 “이제 국민의당과 합의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민의당이 이탈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추경 심사는 물론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민주당은 6일 예결위에 추경안을 상정한 뒤 7일까지 문 심사를 완료하고,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제외해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합치면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예결위에 국민의당이 불참,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가 결국 불발되면서 여당의 계획은 틀어진 상황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면 9월 정기국회 본예산 편성 때 이를 반영하는 방법 밖에 없다. 사실상 추경안을 통해 얻고자 했던 정책 목표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상황은 비슷하다.

결국 돌아선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추 대표의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추 대표의 고집은 정치권에서 알아주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추 대표 측은 국민의당의 반발에 대해 “말 꼬리 잡기”라며 “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충실한 것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협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여당 대표가 판을 뒤엎었다는 점에서 당분간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

민주 의원 겸직장관 상임위 조정

김영춘-안행위·도종환-농해수위·김현미-미래위

김부겸, 기재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에 발탁된 의원 겸직 장관 4명에 대한 상임위원회 조정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던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안전행정부위원회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농해수위로 각각 조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자리를 옮겼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변동 없이 기획재정부에

머무르기로 했다.

이같은 조정 작업으로 안행위 소속이던 김영춘 의원이 기재위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던 설훈 의원이 교문위로 각각 재배치 됐다. 외통위에는 문미숙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이어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이수혁 의원이 합류했다. 문 보좌관은 당초 미방위 소속이었다.

이번 조정에서 최우선 고려된 것은 장관들의 ‘이해충돌 방지’였다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들 장관의 소속 상임위가 해당 부처를 관할할 경우 의원직과 장관직 사이에 ‘역할 갈등’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호남 온 전병헌 수석 “현안 적극 지원”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특별법·광주공항 이전 등

전병헌<사진> 청와대 정부수석이 6일 전국순회 간담회 첫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방문, 각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전남도는 이날 전남도청을 찾은 전병헌 청와대 정부수석에게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우 노선 확정 등 현안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날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 정부수석, 나소영 지방분권 비서관 등과 간담회를 하고 일자리 정책,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우와 함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 특별법 제정 ▲광주 연구개발 특구 확대 지정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혁신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전 정부수석은 이어 광주시청을 방

문, 윤장현 광주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5·18정신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명화 ▲빛그린산단 중심 미래형 자동차산업 벨리 구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광주공항(군 공항 포함) 이전 지원 및 스마트시티 조성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등 10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전 정부수석은 “이번 방문에서 수렴된 광주·전남지역 현안과 지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오광록 기자 jwpark@

문무일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

검찰총장 후보자 개혁구상 착수...철야수사 금지 등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권 검찰’을 화두로 개혁 구상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6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회의에서 “검찰의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준비단은 수사 과정의 피조사자 권리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자체 개혁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철야수사 금지, 충분한 진술권 보장, 변호인 조력 강화 등 폐쇄적 수사

환경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이와 함께 ‘진술 중심’의 수사를 ‘물증 중심’으로 전환해야 불필요한 인권 침해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 서부지검장 시절 피의자·고소인·참고인 등이 수사관·검사의 ‘경정도’를 평가하는 ‘인권경정카드’제도를 도입, 화제를 불렀다. 카드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었느냐’는 질문에 ‘정성껏 귀 기울임’부

터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음’까지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식이다.

피조사자가 조사자를 평가하는 획기적 발상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낳았지만 서울동부지검 등으로 확대되는 등 성과를 거두, 서부지검은 법무부 선정 ‘인권보호 최우수청’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지명 직후 ‘인권 검찰’ 깃발을 들고 나선 것이 자체 개혁 노력이기도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등에 대비하는 ‘다목적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지휘 및 영장청구 통제 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野 “탈 원전은 졸속”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본격 정경화하고 나섰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일자리 추경 등의 대응에 주력해 왔던 야권이 공약 면면을 피해지며 ‘각론’에도 비판의 칼을 들이대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위’(위원장 이재익 의원)를 발족해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6일에도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급진적 탈원전 정책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에서도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일시 중단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정현백 여성부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이날 오후 늦게 채택됐다.

인사청문특위 이찬열(국민의당)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두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기결한다고 선언했다.

특위는 박 후보자의 보고서에서 “약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으로 법이론과 실무에 경험

을 갖왔다”며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봉사한다고 말했다고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려대를 나온 박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관사를 지내는 등 사법부 ‘유리 천장’을 깬 법관이다.

특위는 조 후보자의 보고서에서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관 11년을 포함해 35년간 법조 실무 경험으로 전문성과 재판 실무 경험을 갖왔다”고 강조했다.

박·조 대법관과 정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의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형호기자 khh@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송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용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복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복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부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6000만원

문의 010-6496-2525